

# 사립학교도 '일상감사' 대상, 투명성 높여

### 지난해 도교육청, 5000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계약 등 대상 총 141건 진행

전라북도교육청이 사립학교를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지난해 감사 건수가 크게 늘었다. 6일 도교육청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와 교육기관 등의 5,000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계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감사를 지난해 총 141건 진행했으며 이는 2015년 4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지난해 진행한 일상감사 내역은 ▲공사 56건 ▲물품 48건 ▲용역 29건 ▲업무추진비 8건 등이다.

기관별 현황을 보면 도교육청 17건,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2건, 공립학교 44건, 사립학교 58건으로 사립학교가 새롭게 포함됐다.

도교육청의 일상감사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요인은 지난해부터 사립학교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고 학교 주관 교복 공동 구매, 특성화고 교육과정 사업비 확대,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주요인으로 보인다.

한편 도교육청의 일상감사는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의 주요 정책사업 중 1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이나 5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 건당 2백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대



**발명 발전기금 기부** 국립 군산대학교 해양생명융합학과부 해양생물공학전공 해양바이오 분야 교수들이 6일 대학교 총장 접견실에서 내외군 총장에게 대학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상으로 한다. 집행부서는 사업계획 최종 결재 전 에 일상감사를 의뢰해 사업집행 초기 단계부터 점검을 통하여 행·재정적 낭비요인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 전주시, 독일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지난해보다 10배 늘어난 중소기업 수출예산 활용 해외박람회 참가·수출상담회 개최 등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전주시가 올해 지난해보다 10배 늘어난 중소기업 수출예산을 활용해 독일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시는 세계에서 통하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기업들의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지원 및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올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을 위해 지난해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3억원의 투입해 해외박람회 참가와 수출상담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 등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에 나선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적극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나서게 된 것은 국내의 어려운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감소했지만, 전주시 수출액은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을 통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수출동향 및 무역통계사이트인 Trade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전주시 수출액은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이 늘면서 8억5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약 2.2%p 증가했다.

일례로, 전주시 대표적인 수출기업인 비나텍(주)(대표 성도경)은 전년대비 약 30% 수출신장을 이뤄내며, 연료전지 소재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주)엔아이비(대표 강홍진)는 자동차 터보차저 부품을 개발해 일본 등의 주요 자동차 회사로 수출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들 두 기업 외에도 지역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수출증대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어 향후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근 기자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4월부터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해왔다.

나아가 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및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에는 전북지방 중소기업청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등 11개 수출지원기관 및 금융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다양한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현장의 걸림돌이 될 애로사항을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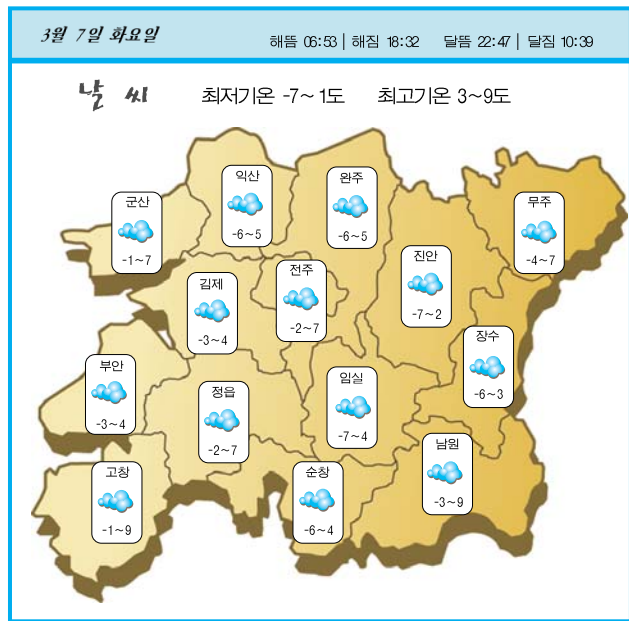
## 전북대, 5년 연속 국제화역량 인증 획득

전북대학교가 정부로부터 5년 연속 국제화 역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6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인증대학에 선정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국제화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인증함으로써 고등교육 기관의 질 관리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제'를 확대한 것이다.

전북대는 인증제가 도입된 2012년 이래 5년 연속 선정됐으며 오는 2020년까지 3년 간 인증대학으로 인정된다.

인증결과로 받는 혜택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등 대학 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를 받고 인증 결과 역시 국내외에 공개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선택을 위한 공신력 있는 정보로 제공된다.

또한 국내 및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증 결과가 제공되고 불법 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으로도 선정돼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사증발급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해은 기자



## 전북대, 한옥 우수성 국제회의서 알리다

최근 미국에서 한옥 전시회를 여는 등 우리 한옥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이번에는 세계인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한옥을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전북대 남해경 교수(건축공학)는 최근 세계 MOOC협회와 UNESCO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아시아태평양 무크관계자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 우리나라의 '한옥'을 주제로 발표했다.

아시아와 유럽의 태평양 연안 국가, UNESCO 등 세계 각국의 대표가 각국의 주제에 관해 발표한 이번 회의에서 남 교수는 우리나라 한옥의 특징, 한옥의 미학, 그리고 전북대가 시행하고 있는 한옥교육, 한옥 발전방향, 한국문화로서 한옥의 해외 홍보에 대해 발표하여 관련 당사국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정해은 기자

교육의 특성화와 지역사회의 관계, 한옥의 산업화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발표를 이어 나가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에는 UNESCO측은 각국의 문화를 온라인 교육으로 촬영하여 세계에 보급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남 교수가 발표한 한옥교육이 이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는 주최측인 태국 교육부장관을 비롯 각국의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이번 회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남해경 교수는 "앞으로는 한옥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옥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 홍보물을 제작하여 세계인을 대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 도교육청, 초등 1학년 한글지도시간 확보 '당부'

전북도교육청이 새학기를 맞아 초등 1학년생에 대한 문자지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도내 초등학교에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한글지도시간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초등학생의

기초문해력 향상을 위해 62차시 문자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받아쓰기를 지양해 달라고 명시했다.

또 일립장 쓰기를 지양하고 한글 미해득 학생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